

이처럼 유난스럽기까지 한 경향에 대해 김남이 실장은 “내가 준만큼 되돌아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0원을 깎아서 제품을 구매하면 10원어치만큼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불완전한 제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의 경우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INTERVIEW

해외분야

김 남 이

일진피엠에스 경영지원실 실장

## “내가 준만큼 되돌아 온다” 친환경마크 인증획득 노력 필요

### 고모리의 친환경적인 노력들

고모리에서 2003년부터 매년 환경 사회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007환경 사회보고서에서 “고모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용전력을 최대한 줄이고 손지를 절감하는 고품질의 인쇄기를 생산해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쓰쿠바 공장의 경우 3년전에 준공된 매엽기 공장 외벽에 태양광발전셀을 붙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과 함께 풍력발전기도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자연에너지로 사무동 사용에너지의 5%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공장내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효율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발전 가로등 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가스식 공조장치를 채택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사용에너지와 함께 공장폐기물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인쇄기 시운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윤활유를 여과장치로 정제해서 재사용하고 있다.

### 고모리의 친환경적인 제품

고모리의 주력모델인 Lithrone S 시리즈는 친환경을 목표로 개발된 인쇄기이다. 이 제품은 손지 종이 잉크의 절감, 무알콜인쇄, 인쇄준비시간 단축, 기계소음 경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고모리 하이퍼시스템 KHS-AI는 대표적인 친환경 시스템으로 손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핀 맞춤 조정과 색맞춤을 위한 인쇄준비시간을 최대한 0에 가깝도록 하여 본인쇄전 손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자동판교환장치도 종이 잉크 에너지를 더욱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고모리매틱 급수장치는 무알콜 인쇄 장치다. 알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쇄시에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어 인쇄시 특유의 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무알콜 인쇄가 가능한 것은 역슬립 방식을 이용하여 판면에 균일하고 얇은 수막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ISO14001 획득을 도와주는 고모리

우리나라에서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인쇄업체는 몇 개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인쇄 및 관련업체들은 ISO 14001이나 무습수인쇄마크 등 다양한 환경관련 마크를 획득하고 있다.

김남이 실장은 “일본의 기업들은 친환경마크를 획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작게는 개인명함에서부터 인쇄물 등에까지 친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친환경인쇄를 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실장은 일본에서 받은 다양한 업체의 명함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ISO 14001과 9001을 많이 취득하고 있으며, JAB, AJA, GPP(무습수인쇄) 외에도 영국의 UKAS(quality management)도 획득하는 등 다양한 마크를 포함한 명함들을 보여주었다.

대행을 맡기지 않고 인쇄사에서 직접 ISO 14001마크를 획득하는 것은 어렵다.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리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면 3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고모리에서는 환경마크를 취득을 도와주기 위해 해당 인쇄업체에 파견을 나가고 있다.

2003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06년 11월까지 3년동안 20개의 인쇄업체를 지원했다.

김남이 실장은 “일본에는 다양한 친환경마크들이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사업들을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체계화되고 발전된 친환경마크 사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또한 친환경제품을 우선구매하는 풍토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다양한 친환경 가이드가 있다. 우선 녹색구매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기업측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상품의 정보를 ‘에코상품네트워크’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 중 ‘인쇄/정보용지’와 관련된 항목 수만 940건에 달한다.

김남이 실장은 “일본은 친환경제품에 대해 유난스러울 정도”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인 제품은 물론이고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의약품 안쪽 포장면에서 한방울의 잉크라도 발견되면 전 일본에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그 해당업체는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장발표나 친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경우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전 일본굴지의 제지업체가 재생용지 배합률이 40%에 가깝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5%정도여서 문제가 됐다.

김남이 실장은 “우리나라였다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넘어갔을 것이다. 쥐머리 새우깡 역시 처음에는 난리가 났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제품들이 모두 수거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난다. 수백년을 이어오던 기업들도 문을 닫는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기도 하지만 기업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문을 닫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유난스럽기까지 한 경향에 대해 김남이 실장은 “내가 준만큼 되돌아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0원을 깎아서 제품을 구매하면 10원어치만큼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불완전한 제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의 경우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을 보고 거기에 친환경마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것이다.



#### TIP UKAS란?

UKAS는 영국의 권위 있는 인증기관으로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하고 있다. ISO9001:2000 인증은 관리 정책 · 자원관리 · 제품설계 · 이행 · 서비스 등 품질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증이다.